

시나리오

그대는..

혼을 결고 일렁이는 붉은

노을꽃

#1. 대가집 행랑채 (밤) -625년

꼬질꼬질한 차림의 여흥(9세), 겁먹은 눈으로 뒷걸음질친다.
사내 하나가 여흥에게 다가온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여흥.
사내, 여흥의 옷을 거칠게 풀어헤친다.
여흥,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다가 사내의 얼굴에 생채기를 낸다.

사내, 반항하는 여흥의 얼굴을 때린다.
울음을 간신히 참으며 사내를 보는 여흥.
사내, 여흥을 사정없이 패기 시작한다.

Intercut. 행랑채 밖.

잔뜩 겁먹은 얼굴의 지귀(8세).
떨리는 손으로 행랑채 문손잡이를 쥐어보지만, 차마 문을 열지 못한다.

여전히 맞고 있는 여흥. 어느 순간, 반항을 멈춘다.
사내, 여흥에게 다시 다가온다.
이 때, 사내의 팔을 힘껏 무는 여흥. 사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선다.
그 틈을 타서 빠져나가는 여흥.

#2. 대가집 행랑채 밖 (밤)

여흥, 행랑채에서 나와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뛴다.
귀를 막고 한 쪽에 서있던 지귀, 여흥을 보곤 냅다 따라 달린다.

행랑채 안에서 팔을 부여잡고 잔뜩 인상 쓴 얼굴로 사내가 나온다.
사내, 거친 욕을 뱉으며 흠에다 발길질 한다.

#3, 4. 사찰 중앙마당 / 산 중턱 (낮)

#3.

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행사 중인 작은 사찰 (절)
목탁 두드리며 경전 외우는 소리.

사찰 안에 걸린 연등과 종, 바람에 흔들린다.

사찰의 주지스님. 불공을 드리는 중이다.

#4.

꼬질꼬질한 차림으로, 옷고름도 뜯겨있는 여흥.

넋이 나간 표정으로 산을 오른다.

쪼르르 뒤를 따르던 지귀, 발을 헛디더 떨어진다.

뒤를 돌아보는 여흥, 지귀에게 다가가 지귀를 일으킨다.

#3.

불공 드리는 주지스님 뒤로, 마당에 잔뜩 몰려있는 사람들.

그 사이 엄숙한 표정으로 서있는 선덕(30세, 덕만공주 시절)과 보명(30대 후), 평범한 옷차림이다.

엄숙한 의식이 끝난 후, 탑 앞에 절하고 탑 주위를 도는 주지스님.

그 뒤를 따라 다른 스님들도 탑 주위를 돈다.

주지스님. 탑에 목례한 후 사라진다. 주지스님 뒤를 따라가는 스님들.

이후 범종(梵鐘), 법고(法鼓), 운판(雲版), 목어(木魚)의 네 법악기로 <백팔정진가(百八精進歌)> 연주소리 들린다.

머뭇머뭇하던 사람들. 귀족 하나가 탑 주위를 돌자 우르르 따라서 탑 주위를 돈다.

그 사이로 엄숙하고 기품있는 모습으로 탑돌이하는 선덕.

#4.

앞으로 가려다 멈칫하는 여흥. 돌아서서 지귀에게 손 내민다.

지귀, 잠시 여흥을 바라보다 손을 잡는다.

산을 오르는 둘의 뒷모습.

#3.

엄숙했던 분위기, 들뜬 분위기로 바뀌어있다.

탑 주위를 빙빙 돌며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 가지각색이다.

무표정하게 도는 사람, 광신도처럼 울며불며 기도하며 도는 사람,

힐끔거리며 여자들 훑쳐보는 남자와, 남자들 훑쳐보는 여자도 있다.

간간히 청얼대는 어린아이도 보인다.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분주한 사찰의 모습.

#5. 사찰, 종문 앞 (낮)

두 손 꼭 잡고 선 지귀와 여흥의 뒷모습.

일주문 안으로 부처님오신날 행사 중인 절의 모습, 한눈에 들어온다.

‘와!’ 하고 감탄하는 지귀. 여흥을 쳐다본다.
여흥, 사찰 안으로 발을 내딛는다.

#6. 사찰 중앙마당 (낮)

사람들 사이로 여전히 돌고 있는 선덕.
무엇에 홀린 듯 기도하는 모습이 애처롭다.

돌고 있는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는 여흥. 합장하고 탑 주위를 돈다.
지귀, 여흥을 따라하며 힐끔힐끔 쳐다본다.

#7. 사찰 별채 앞, 마당 (밤)

행사 끝난 뒤 적막한 절터.
고요한 가운데 아직 달려있는 연등만이 환히 빛난다.

이윽고 별채에 불이 켜진다.

#8. 사찰 별채 앞 (밤)

Ins. 별채 안.
소복 입은 선덕이 옷매무새를 만지며 일어선다.

문이 열리고, 염주를 든 선덕이 나온다.
문 앞에 보명이 서 있다.

보명 밤이 깊었습니다.

선덕, 신을 신는다.

보명 공주님...
선덕 췌...

보명, 나가는 선덕을 차마 잡지 못한다.

#9. 사찰, 중앙마당 (밤)

달빛과 연등만이 불을 밝히는 아래, 선덕이 탑을 돌며 기도 중이다.

땀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흠뻑 젖은 선덕의 얼굴이 애처롭다.
멀찍이서 선덕을 지키는 보명.

이 때, 우연히 변소에 나왔다가 선덕을 발견하는 지귀.
마당 한켠에서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돌아선다. F.O.

#10. 활리역 마위전(馬僞田) (낮) -635년.

- 10년 후, 신라 선덕여왕 3년 -

말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지귀, 그 옆에 앉아 나무조각에 열중한다.
욕도가 와서 앉자, 옆의 말이 푸드득 똥을 싸다.

욕도 또야? 하여튼 뭐만 먹었다하면 뿌지직. 똥구녕 다 헐었어, 저놈은.
(헐끔 지귀를 보곤) 니가 다섯 살 먹은 애냐?
늦바람에 애 벤다더니, 딱 그 짝이구만.

지귀, 말없이 웃는다.

욕도 우리 팔자도 참 똥 같은 팔자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라는 데나 가고, 하라는 거나 하고.
지귀 왜요, 그래도 명색이 나랏 녹 먹는 관리잖아요.
욕도 그러니 환장한다 이 말이야. 내 원 드러워서 확!

하는데, 동리 다가온다.

욕도 아이고, 도련님. 어찌 오셨습니까요?

동리가 나가라는 눈짓하자, 사라지는 욕도.

동리 네 누이에게 전했냐?
지귀 (잠시 생각하다 알아채고는) 예...
동리 아무 말이 없든?
지귀 ...
동리 오누이 사이가 각별하다지?

동리, 지귀의 손을 덥석 잡는다. 손 안에 편지가 들려있다.

동리 (결의에 찬 표정으로) 잘 부탁하네, 처남.

병사 하나가 말을 타고 와서는 부선의 앞에 선다. 병사, 부선에게 서찰을 전한다.
부선, 서찰을 읽고는 별채 안에 “마마, 부선이옵니다.” 한다.

부선, 별채 안으로 들어온다.

부선 지금 궁에 당나라의 사신이 왔다 합니다.
헌데 이번에 온 사신이, 폐하를 신라의 황제로 임명하는 칙서를 들고 왔답니다.
속히 궁으로 드시지요…….
선덕 (반색을 표하며) 그래? 어서 궁으로 갈 채비를 하라.
(보명을 보며) 헌데… 아직도 지키는 소식이 없더냐?

보명, 머리를 조아린다.
선덕, 생각에 잠기며 버릇처럼 팔목을 매만진다.

#110. 염숙의 집, 안사랑채 (밤)

귀족들 몇몇이 모여 있다.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적은 수다.

염숙 다른 분들은 다 무얼 하고 계신단 말이오!
임영리 …이미 대세가 기운 듯 합니다. 때를 기다리시지요.
염숙 더 이상 무슨 때를 기다린단 말이냐!
임영리 이 곳에 모이지 않은 분들 모두가 돌아서신겁니다.
당에서 칙서마저 도착한 이상,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할 순 없습니다.
염숙 …….
(모두를 보며)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겐,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라 전해주시게.
임영리 (다급히) 어르신!

#111. 어느 들길 (밤)

선덕의 행렬, 어느 들길을 지난다. 어디선가 불화살 날아든다.
이윽고 사병들이 들이닥친다. 줄지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행렬.
군사들과 사병들, 서로 얹혀서 싸운다.

부선 (한 군사를 향해) 속히 궁으로 가거라!
군사1 예!

군사1, 그 사이로 빠져나간다.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부선, 친위대와 함께 선덕의 가마를 지킨다.
가마 속에 앉은 선덕. 결연한 표정이다.

부선, 염숙의 목에 칼을 겨눈다.

선덕 (노려보며)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그 근본이다!

근본을 모르는 자를 어찌 신라의 관료라 하겠느냐!

여봐라. 당장 이 자에게 역모의 죄를 물어, 극형에 처하도록 하라!

군사들, 염숙을 끌고 나간다.

선덕, 다시 가마에 오른다.

#114. 어느 화장터(혹은 야산(野山)) (밤)

지귀, 명석으로 말은 여흥의 시신을 불에 태우고 있다.

모든 산을 다 태워버릴 듯한 기세로, 거센 불이 붙는다.

지귀 (v.o) 아직도 불이 무섭수?

여흥 (v.o) 아직은……. 너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집에 불났을 때…

Ins. 지귀의 집, 마당, 회상 (#55.의 지귀와 여흥의 대화 장면.(밤))

여흥 불이 하도 활활 타올라서 안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도,
그래도 난 그게 보이는 것만 같더라…….

지귀, 문득 참을 수 없는 분노, 답답함에 울부짖는다.

#115. 궁 조원전(朝元殿) (낮)

의관을 정제한 선덕이 서있다. 당의 사신, 칙서를 읽고는 선덕에게 건넨다.

칙서를 건네받는 선덕. 당의 사신에게 목례한다.

엄숙한 분위기다.

#116. 영묘사 종문 앞 (낮)

Ins. 영묘사 대웅전 안. 불공드리고 있는 영지스님의 뒷모습.

작은스님과 지귀, 대화하고 있다.

작은스님 (선덕의 팔찌를 지귀에게 내밀며) 황제께서 이걸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지귀 (말없이 받아든다. 허탈하고 기막히고, 복잡하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까?

작은스님 예... 현대, 저희 주지스님께서 전하합니다.

(지귀 보면) 이승에서의 인연은 예까지이니, 너무 마음 쓰시지 말라구요.....

지귀 (멍하니 팔찌를 본다.) 그리고... 비밀로 하라셨겠지요.....

작은스님 예?

지귀 (작은스님의 손에 팔찌를 쥐어주며) 시주했다 치시오.

지귀, 끓어오르는 마음 억누르며 발길을 돌린다. 눈에 가득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진 않는다.

작은스님, 멍하니 바라보다가 지귀의 뒷모습에 대고 합장한다.

#117. 몽타주 (밤)

- 영묘사 아랫마을, 어느 기생집>

임경수, 서너 명의 기생들을 옆에 끼고 취하도록 마시고 있다.

앞에서 기생 하나가 가야금 연주를 한다. 이 때 바깥에서 “불이야~”소리 들린다.

놀라서 나가는 임경수. 허나 꿈쩍없이 방 안에 갇혔다.

이미 불길이 치솟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기생들과 함께 허둥댄다.

기생집 밖의 모습,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다.

- 영묘사 아랫마을, 주막>

주막이 활활 불에 타고 있다.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울고불고 하는 주모.

불길, 더욱 치솟으며 옆의 집으로 옮겨 붙는다.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어버린 마을의 모습. 사람들, 정신없이 물을 퍼다 나른다.

이 때, 불이 옮겨 붙은 집 뒤 쪽에서 눈에 초점을 잃은 지귀가 온 몸이 젖은 채 비틀거리며 나온다.

#118. 영묘사 가는 어느 산 길 (밤)

지귀, 온 몸이 젖은 채 미친 사람처럼 터덜터덜 걷는다.

Ins. 지귀의 집, 마당, 회상 (#55.의 지귀와 여흥의 대화 장면.(밤))

여흥 너희 어머니랑 우리 아버지랑, 불속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는 모습말야...
지금도 그래. 그냥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 그 모습이 보이는 거 같애.

#119. 영묘사 종문 앞 (밤)

지귀, 영묘사 안으로 들어선다.

이 때, 영묘사 안에서 양지스님이 나오다 지귀와 눈이 마주치고, 멈춰선다.

양지스님 (합장하며) 괴로움의 원인도 없고,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또한 얻는 것도 없다 하였습니다.
이제 마음을 자유로이 놓으시지요.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양지스님, 다시 합장하고는, 급하게 뛰어간다. 그 뒤를 따라 작은스님을 비롯한 몇몇 스님들
뛰어 나간다.

미친 듯 웃어채끼는 지귀. 웃음이 울음으로 변한다.

지귀(v.o) 나는 하도 어릴 적이라, 기억도 안나. 뭘 일이 있었는지...

지귀, 영묘사 안으로 들어선다.

젖은 지귀의 몸에서 물 같은 것(기름)이 뚝뚝 떨어진다.

#120. 영묘사 중앙마당 (밤)

적막한 영묘사 안. 개미새끼 한 마리 없다.

온 몸에 불이 붙은 지귀가 중앙마당을 향해 비틀대며 걸어온다.

중앙마당 가운데에 있는 탑을 잡고 선 지귀, 곧 불이 탑에 옮겨 붙는다.

온 몸에 불이 붙은 채 탑 주위를 천천히 도는 지귀의 뒷모습.

#121. 영묘사 종문 앞 (밤)

종문 앞, 지귀 몸에서 떨어진 기름 자욱이 흥건하다.

그리고 그 옆 담장 아래에, 선덕과 여흥 모양의 작은 조각이 여전히 놓여져 있다.

하지만 여흥 모양의 조각은 누워있고, 선덕 모양 조각은 세워져 있다.

#122. 영묘사 중앙마당 (밤)

지귀, 탑 주위를 천천히 돌다가 쓰러진다.

Flashback. 궁, 선덕왕 침전, **회상** (#71의 지귀와 선덕 대화하던 모습 (밤))
선덕이 밝게 웃자, 경직되었던 지귀도 머쓱하게 미소 짓는다.

탑 옆에 쓰러진 지귀의 얼굴에 희미하게 미소가 걸려있다.
활활 타오르는 지귀의 뒤로, 절 안에서 스님들이 뛰어나온다. **F.O.**

#123. 궁 선덕왕 침전 (낮)

선덕, 눈물이 그렇그렇한 채 글을 쓰고 있다. 글을 다 쓰고 붓을 놓는 선덕.
종이엔 “志鬼心中火 燒身變火神 流移滄海外 不見不相親” 라고 쓰여있다.

처연히 통곡하는 선덕. 그런 선덕의 옆에서 머리를 조아린 채 서있는 보명의 모습.
그 위로 선덕의 내레이션 울린다.

“지귀는 마음에서 불이 일어 몸을 태우고 화신이 되었네.
푸른 바다 밖 멀리 흘러갔으니, 아는 체 말고 그대로 두어라.”

내레이션 소리 위로, <백팔정진가(百八精進歌)> 연주소리 들린다. **O.L.**

#124. 영묘사 중앙마당 (낮) -636년

- 1년 후, 신라 선덕여왕 4년, 사월 초파일 -

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행사 중인 영묘사 중앙마당.
어디선가 <백팔정진가(百八精進歌)> 연주소리 들리는 듯 하다.

선덕, 양지스님을 따라 탑 주위를 돌고 있다.
마당 한켠에서 스님을 비롯한 귀족, 관료들이 선덕의 모습을 지켜본다.

엔드 크레딧 오른다.

#125. 궁, 선덕왕 침전(회상) (밤)

선덕이 밝게 웃자, 지귀, 머쓱하게 따라 웃는다.

선덕 아직도 나무를 깎으며 노느냐?

지귀 예. 가끔 합니다…….

선덕 내 이제 와서 말이지만,

아무리 보아도 그 조각이 말인지, 돼지 새끼인지 분간이 가질 않는구나…….

지귀, 살짝 뚱해진 표정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선덕 (웃으며) 아니면, 네가 타고 다니는 말은 원래 그리 생긴 게냐?

지귀 말이 원래 그리 생긴 겁니다.

선덕, 까르르 웃는다.

지귀, 선덕을 따라 머쓱하게 따라 웃는다.

그렇게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둘의 모습에서 F.O.

끝.